



2014년 12월 12일 제 52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동향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 [의회] **미 의회, 1.1조달러규모의 ‘15년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 동 예산안은 11개 통합예산안과 1개 잠정예산안으로 이루어진 Cromnibus Bill로 처리, 잠정예산 시한(11일)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방정부 잠정폐쇄 (shut-down) 위기 모면

- [미국경제] **미국경제, 3/4분기 이후 3%대의 성장세 지속 전망** : 높은 일자리 창출(321,000명)과 낮아진 실업률(5.8% 유지)로 고용시장은 지속적인 회복세 시현

- [기후변화]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12.2-12, 페루 리마),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관련 협정문 협의** : 2015.12월 Paris 개최 예정인 제21차 당사국총회시까지를 목표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협정문 초안 협의중. 참가국들은 내년중 국별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해야 하나, 모든 참가국들의 감축량을 합쳐도 지구 대기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탄소배출 감축량의 절반 정도만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NYT 보도)

-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미 의회 2015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 ◇ 미 의회는 1.1조달러규모의 '1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 동 예산안은 11개 통합예산안과 1개 잠정예산안으로 이루어진 **Cromnibus Bill**로 처리, 잠정예산 시한(11일) 前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 셋다운 위기 모면

1 미 의회 예산안 합의

- (**Cromnibus Bill**) 11개 통합 세출법안과 1개 잠정예산안을 합성한 형태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
 - * 회계연도: '14년10월1일~'15년9월30일
 - 산업통상·국방·에너지·금융서비스·의회활동·국방 건설·주택 운송 등 11개 분야는 2015년 회계기한인 9.30일까지 예산이 확정된 통합예산안(Omnibus Appropriation Bill)
 - 오바마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11.20)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7일까지만 한정하는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 (**예산안 투표**) 하원은 찬성 219 반대 206으로 상원은 표결 통과 되었으나, 상원은 검토 시간이 부족하여 현재 잠정 예산안 시효를 2일간 연장하는 Stopgap bill을 통과시켜 13일까지 투표를 마무리 할 예정

2 예산안 주요내용

- (**총 규모: 1.1조달러**) 국방분야 5,210억 달러와 비국방분야 4,920억 달러로 구성
- (**국방: 5,210억달러**) 국방 국가 보조금 및 해외 미군기지 자금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던 ISIS 전쟁자금 등이 포함
 - ISIS(이슬람국가)와의 전쟁자금(50억달러), 해외에서의 우발적 작전 수행에 대비한 해외비상작전(OCO) 군사 예산 (640억달러)과 러시아 대항 국가 보조금 (4억8500만달러)등이 포함

- (非국방: 4,920억달러) 사회 복지, 에볼라 퇴치 자금 등이 포함되었으나 국세청과 환경보호청의 예산은 대폭 삭감
 - 공화당의 반대에 따라 대통령이 요구한 오바마 케어를 위한 추가 지원금은 미포함
 - 에볼라 퇴치 자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62억달러 보다 낮은 54억달러 예산 책정
 - 환경보호청(EPA)*과 국세청 (IRS)*의 예산은 대폭삭감
 - * 환경보호청 예산(81억 달러): 6천만 달러 삭감 후 '89년 이후 최저치 기록
 - * 국세청 예산(109억 달러): 3억 4,560만 달러 삭감 후 '08년 이후 최저치 기록
 - 보건사회 복지부의 부모 없는 아이들 교육과 복지 예산(948억달러), 국무부의 중앙아메리카 아이들 지원금(260억달러)과 불법이민자 자녀 교육비(14억달러) 추가 지원

3 평가 및 전망

- (평가) 동 합의예산은 회복기에 접어든 미국경제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폐쇄(Shut down)를 막아야 한다는 양당간의 공감대속에서 이루어낸 초당적 협력이라는 평가
 - 다만, 국내 투자보다 해외안보를 중시한 예산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안들이 내년 상반기에 정국을 긴장시킬 것 이라는 평가
- (전망) 이번 합의 예산안과 분리 조치된 국토안보부 단기 잠정 예산안 만료('15년2.27일)를 앞두고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이민개혁 행정조치 수정 압력이 거세질 전망
 - 또한, 금융개혁법(Dodd-Frank Act), 수질환경보전법(Clean Water Act), 온실가스(Greenhouse Gas), 낙태문제, 마리화나 합법화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

/ 끝 /

※ 내용 관련 문의 : 박창환 재경관보 (202-641-8717, excelpch@gmail.com)

최근 미국의 경제동향 (14.11월)

◇ 미국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낮아진 실업률로 고용시장은 지속적인 회복세 유지, 민간소비·투자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3/4이후 3%대의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

□ (경제성장)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3.5%로 전망했으나 수정치는 3.9%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

* 시장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3분기 성장률이 3.2~3.3%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 2분기(4.6%)보다는 다소 떨어졌으나, 1분기 한파와 폭설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2.1%)을 제외하면 지난 5분기 중 4개 분기 성장률이 3.5%를 상회

(전기비, %)

	'13.1/4	2/4	3/4	4/4	'14.1/4	2/4	3/4
GDP 성장률	2.7	1.8	4.5	3.5	△2.1	4.2	3.9
· 개인소비	3.6	1.8	2.0	3.7	1.2	2.5	2.2
· 설비투자	1.5	1.6	5.5	10.4	1.6	9.7	7.1
· 주택투자	7.8	19.0	11.2	△8.5	△5.3	8.8	2.7
· 정부지출	△3.9	0.2	0.2	△3.8	△0.8	1.7	4.2
· 수출	△0.8	6.3	5.1	10.0	△9.2	11.1	4.9
· 수입	△0.3	8.5	0.6	1.3	2.2	11.3	△0.7

* 연간 GDP 성장률 : 2.5%('10), 1.6%('11), 2.3%('12), 2.2%('13)

□ (소비·투자) 민간소비(2.5→2.2%)와 민간투자(9.7%→5.1%) 모두 2분기에 대비해 소폭 하락

○ 민간소비 하락은 내구재 소비 감소에 기인하며, 민간투자는 주택 투자 부진에 따른 결과

	2/4	3/4	4/4	'14.1/4	2/4	3/4
* 민간소비(전기비, %)	1.8	2.0	3.7	1.2	2.5	2.2
* 민간투자(전기비, %)	6.9	16.8	3.8	△6.9	19.1	5.1

○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8.8로서 경기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여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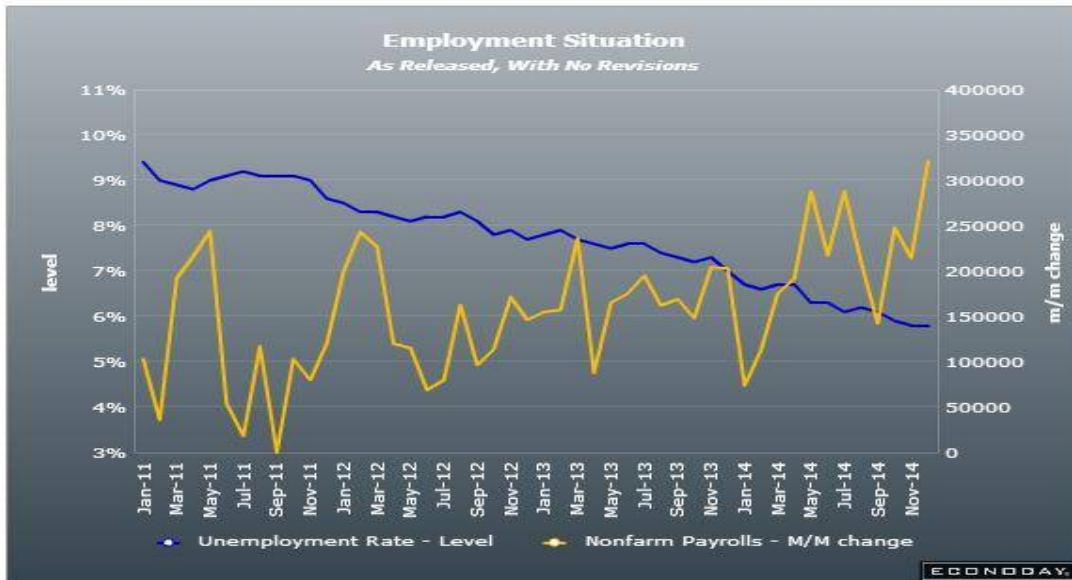
- 11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58.7%를 기록

	'14.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소비자 신뢰지수(미시건)	82.5	81.3	82.5	84.6	86.9	88.8
* ISM 제조업지수	55.3	57.1	59.0	56.6	59.0	58.7

□ (고용) 11월 실업률은 5.8%로 전월과 동일하며, 2008년 7월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유지

○ 비농업취업자 증가는 32만 1000명으로 2012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

	'14.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실업률(%)	6.1	6.2	6.1	5.9	5.8	5.8
* 경제활동참가율(%)	62.8	62.9	62.8	62.7	62.8	62.8
* 비농업취업자 증가(만명)	29.8	20.9	14.2	24.8	21.4	32.1



○ 11월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상승폭은 0.4%를 기록,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주택시장) 주택판매는 낮은 금리와 고용 증가 지속으로 신규 주택 판매 호조를 예측했으나, 신규주택판매는 0.7% 상승에 그쳐 모멘텀 형성에 실패하였고, 신규주택착공 또한 2.8% 하락

	'14.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기존주택 판매(전월비, %)	5.4	2.6	2.4	△1.8	2.4	1.5
* 신규주택 판매(전월비, %)	8.3	△8.1	1.9	18.0	0.2	0.7
* 신규주택 착공(전월비, %)	△7.3	△9.3	8.1	△14.4	6.3	△2.8

□ (물가) 10월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비용 하락, 가계의 소비 여력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고,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0.2% 오르며 전망치인 0.1%상승을 상회

	'14.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소비자물가(전월비, %)	0.4	0.3	0.1	△0.2	0.1	0.0
* 근원물가(전월비, %)	0.3	0.1	0.1	△0.1	0.1	0.2

/끝/

※ 내용 관련 문의 : 박창환 재경관보 (202-641-8717, excelpch@gmail.com)

제 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관련 언론보도(NYT)

12.9(화) New York Times는 “With Compromise, a Global Accord to Fight Climate Change is in Sight” 제하 기사를 통해 현재 리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회람되고 있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관련 협정문 초안의 의의, 문제점 및 남은 과제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도함.

1 협정문 초안의 의의

- 제20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0)에서 회람되고 있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관련 협정문 초안은 지난 20여년간 지체되어온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것임.
- 동 협정문 초안이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요소는 모든 국가들을 배출감축(emission reductions)과 관련한 단 하나의 글로벌 기준을 준수토록 만드는 것 보다는 각 국 정부가 자국의 국내정책에 따라 선정한 목표에 맞춰 배출감축 계획을 이행해 나가도록 공약토록 하는 보다 낮은 수준의 달성 가능한 정책 목표(lower, more achievable policy goal)를 제시하는 것임.
 - 금번 협정문 초안(소위 Lima Draft)은 교토의정서와 같이 관련 국가들이 특정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토록 하지 않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포함하여 각국이 자신의 감축계획을 공약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번 협정문 초안 서명국들은 2015.3월까지 자국이 2020년 이후 탄소배출 감축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해야 함.

-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내년 3월이라는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도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은 내년 6월까지도 국별 공여계획을 제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언급하여 왔음.
- 이에 따라 모든 국가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별 공여 계획 제출시기를 늦출 수도 있을 것임.

2 협정문 초안의 문제점

- 금번 협정문 초안(소위 Lima Draft)이 비록 모든 협상참가국들의 노력의 산물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합의가 기껏해야 지구 온난화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탄소배출) 감축량의 절반 정도만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Yvo de Boer 前 UN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現 GGGI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들이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금번 협정문 초안은 (기후대응 관련) 하나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금번 새로운 역사적인 합의가 지구 대기온도 상승을 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함.
- 금번 COP20 미측 수석대표인 Todd Stern 국무부 기후변화특사는 “모든 국가들을 협상에 참가시키고 또 합의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현재의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을 생각해 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바, 이론상으로는 모든 국가들에게 특정한 탄소배출 감축량을 할당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는 결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3 향후 과제

- 다수의 개도국들은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국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탄소세 관련 법안을 폐지한 호주처럼 변수도 남아있으며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함.
- 다수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들은 각국의 탄소배출 감축 공여 계획에 기후 적응(adaptation)을 위한 자원 공여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각국이 감축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제 마련도 필요함.
- 아울러, 미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비준 당시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관련) 최종 합의문의 성격이 자국 상원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의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속 제기해 오고 있으나, 다수의 국가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문을 희망하고 있음.

/끝/

※ 내용 관련 문의:문인석 1등서기관 (202-939-5671, ismoon72@gmail.com)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4.12.12 금)

DOW(0.36% 상승) KOSPI(0.27% 상승) 달러 환율(0.20% 상승)

재경관실

[주가]

	'12말	'13말	14.9말	10말	11말	12.10	12.11	12.1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3,104.14	16,576.66	17,071.22	17,195.42	17,827.75	17,801.20	17,533.15	17,596.34	0.36%	-1.30%	6.15%
Nasdaq	3,019.51	4,176.59	4,505.85	4,566.14	4,787.32	4,766.47	4,684.03	4,708.16	0.52%	-1.65%	12.73%
S&P 500	1,426.19	1,848.36	1,977.80	1,994.65	2,072.83	2,059.82	2,026.14	2,035.33	0.45%	-1.81%	10.12%
KOSPI (한)	1,997.05	2,011.34	2,020.09	1,964.43	1,980.78	1,945.56	1,916.59	1,921.71	0.27%	-2.98%	-4.46%
NIKKEI (일)	10,688.11	16,291.31	16,173.52	16,413.76	17,459.85	17,412.58	17,257.40	17,371.58	0.66%	-0.51%	6.63%
FTSE100 (영)	5,897.80	6,749.09	6,646.60	6,463.55	6,723.42	6,529.37	6,500.04	6,461.70	-0.59%	-3.89%	-4.26%
DAX (독)	7,612.39	9,552.16	9,422.91	9,114.84	9,974.87	9,793.71	9,799.73	9,862.53	0.64%	-1.13%	3.25%

[금리]

(단위: %)

	'12말	'13말	14.9말	10말	11말	12.10	12.11	12.1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5	0.07	0.02	0.01	0.02	0.04	0.03	0.03	0.00	0.01	-0.04
T/NOTE (10년)	1.78	2.99	2.50	2.32	2.24	2.22	2.18	2.19	0.01	-0.05	-0.80
T/NOTE (30년)	2.95	3.90	3.18	3.04	2.95	2.87	2.83	2.84	0.01	-0.11	-1.06
LIBOR (Dollar, 3월)	0.31	0.25	0.24	0.23	0.24	0.24	0.24	0.24	0.00	0.00	-0.01

[환율]

	'12말	'13말	14.9말	10말	11말	12.10	12.11	12.1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70.60	1,055.40	1,055.20	1,068.50	1,107.90	1,102.20	1,100.90	1,103.10	0.20%	-0.43%	4.52%
¥ / US\$	86.46	105.30	109.35	110.95	118.21	119.07	118.22	118.84	0.52%	0.53%	12.86%
US\$ / EUR	1.3240	1.3736	1.2687	1.2564	1.2448	1.2391	1.2439	1.2396	-0.35%	-0.42%	-9.76%
CNY / US\$	6.2304	6.0628	6.1468	6.1099	6.1465	6.1775	6.1749	6.1904	0.25%	0.71%	2.10%

[유가]

	'12말	'13말	14.9말	10말	11말	12.10	12.11	12.12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 선물 (\$/배럴)	91.82	98.42	94.57	81.12	73.69	63.82	60.94	59.95	-1.62%	-18.65%	-39.09%
Dubai (\$/배럴)	107.81	107.88	94.90	84.82	73.33	63.20	63.76	61.57	-3.43%	-16.04%	-42.93%

* 최종종가 기준 작성